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Bluenote

블루노트 이슈&정책 Issue&Policy

2023. May
통권
제145호

발행인 김현철 |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 희 진 선임연구위원
서 고 운 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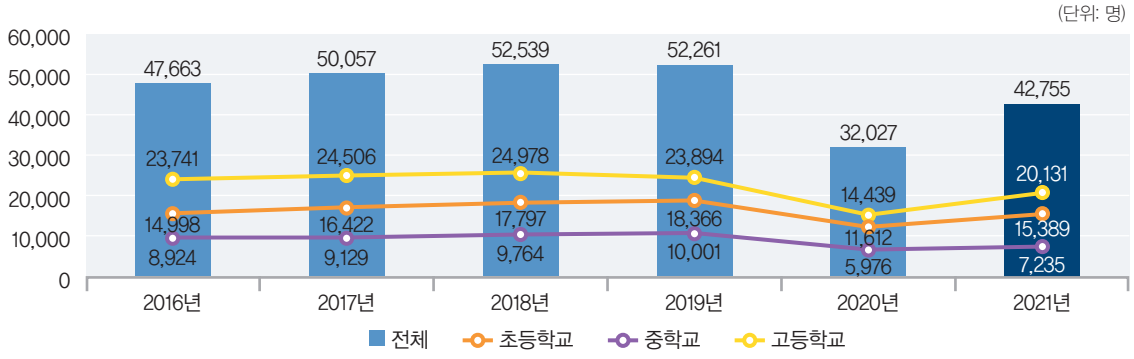
- 본 연구는「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마지막 5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와 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와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8년부터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는 현재 생활, 경제적 상황 직업/취업/자립상황과 지원 경험 및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 재평가 등에 대해, 2020~2021년에 신규 패널로 구축되어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상황,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 지원에서의 아쉬움과 지원 요구 등 정책과제 개발에 초점을 두어 마지막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횡단적 분석뿐 아니라 종단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사회 우수 지원사례와 함의를 제시하고 꿈드림센터 종사자 등 현장실무자와 연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설문조사 및 FGI를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정책과제 우선순위등에 대해 의견수렴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①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④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⑤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이라는 5개 방향성에 기반하여 5개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7개 정책과제,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고유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결과를 발췌 · 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령기 인구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청소년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채 학교를 떠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2022년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2,755명으로, 초등학생이 15,389명, 중학생이 7,235명, 고등학생이 20,131명이었으며,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전년도 통계*에 비해 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였음.

  *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학업중단자수가 5만명대에서 3만명대로 약 2만명 가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조기유학 불가, 원격교육 대체에 따른 등교 불필요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2016~2021년)

- 교육통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미인정유학,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적응과 기타 사유가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였으나, 이전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단따돌림과 교사와의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사유들이 도출되었고, 최근에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어(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등), 이들의 지원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다방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방식과 지원내용에 있어서 더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이전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에서 학생인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는 사례들도 있어(김희진 외, 20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시사함.

- 본 연구는 2018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패널조사*를 통해 제도권 공교육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진로 및 자립실태와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고, 과거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또한 2018~2021년 동안 지역규모별로 수행된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들 역시 종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체계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현재 20대 중반이 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은 2018년부터,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은 2020~2021년 부터 질적패널조사에 참여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자료를 통해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연구를 포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및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현황을 검토하였음.

- 질적조사: ①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20대 중·후반의 기존 패널 중 더욱 함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총 27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음. ② 10대 후반 신규패널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③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음**.
  * 기존 패널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연구진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연구 전문가 4인의 검토를 거쳐, 비교적 함의가 크고 기존 면접에 성실하게 임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FGI는 총 4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꿈드림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종사자, 꿈드림센터 연계기관 종사자들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양적조사: 전국 중간규모 도시지역 꿈드림센터(2020년 대도시 센터와 2021년 읍·면/소도시센터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센터 전수) 총 60개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47개 꿈드림센터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 이외에 면접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지원현황 파악을 위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표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연구 고찰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
연구방법	– 문헌 고찰, 웹 검색	– 기존패널 총 27명 대상 면접조사	– 신규패널 총 24명 대상 면접조사	– 문헌연구 –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웹조사) – 현장종사자 총 12명 대상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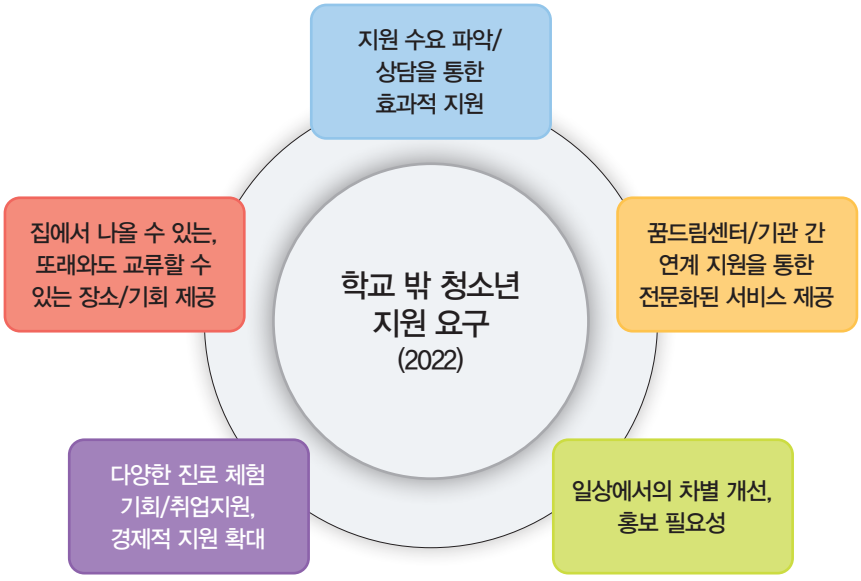
3. 연구결과

- 기존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0대 중·후반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됨에 따라, 이들이 어떠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상황, 자립 등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총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 면접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공적지원 이전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가족 등을 통한 사적 영역의 지원을 받았었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일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이용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 일부 초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해밀사업을 통해 검정고시 지원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음.

-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지원들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고군분투하던 과정에서의 멘토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
  - 학교를 떠난 이후 실질적인 길잡이가 없어 방황한 경험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안내, 즉 실질적인 진로 정보 안내와 검정고시 준비,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지난 수년간의 심층면접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시기에 따라 혹은 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음. 본 연구에 수년간 면접조사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으로 평가하였음.

신규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020~2021년에 질적 패널로 구축된 10대 중·후반의 신규 패널들 역시 기존 패널과 유사한 내용으로 면접이 수행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경험과 개선점 등에 초점을 두었음.
- 면접조사결과, 이들은 다양한 진로 안내와 검정고시, 멘토링을 포함한 진로 지원 및 체험,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수면시간이 규칙적이 되었고, 사회성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부 청소년 중에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커서 집을 나오기 힘들어한 경험을 보고함에 따라 장기적인 고립이나 은둔 예방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례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와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기회가 제한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례도 보고되면서, 지역에 따른 지원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시사하였음.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청소년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또한 진로지도와 차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음.
  -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와 관련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꿈드림센터와 다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진로 관련 지원뿐 아니라 편히 오갈 수 있는 전용공간과 또래들간 교류 기회를 희망하였음. 한편으로,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러한 또래 교류의 기회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기존 및 신규 패널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결과(협동연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 기존 패널 총 27명, 신규 패널 총 24명의 면접자료를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개인 수준, 가족 수준, 또래 관계 수준, 학교 수준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를 그만두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과 결부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이 되었음.
- 신규 패널은 기존 패널과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비슷하였는데,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서'와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와 같은 추가적인 이유가 발견되었음.
- 자립은 '물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 '물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과 심리적인 자립', '심적 태도'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되었음.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 기존 패널 중 총 13명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대상으로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하여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 새로 가족을 형성한 경우, 가족이 진로 발달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진로 및 자립과정은 개인적 차원(학력 취득, 일 경험, 심리·정서적 측면), 가족적 차원, 사회적 관계 차원, 제도적 차원(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제도,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구분되었음.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신규 패널 총 7명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음.
- 심리적·정신적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또래와의 갈등은 은둔 경험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취약한 경제적인 상황,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가정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인프라 부족,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 부족과 같은 지역·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관찰되었음.
-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의지), 부모님(보호자)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친구, 주변의 어른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지지, 꿈드림센터 혹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지원체계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

- 신규 패널 총 8명의 종단자료에 대해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경험들을 분석하였음.
-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후에는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히 준비'하였으며, '지원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후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였고, '지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

- 학교를 그만둔 지 3년 후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하였으며, '지원은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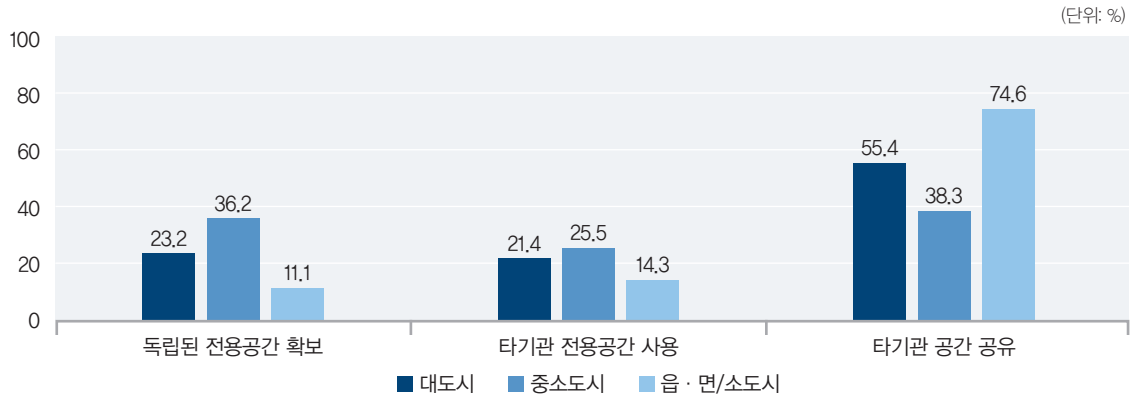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역 연계기관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현장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동시에,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청소년들 사례가 보고됨.
-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 학습 부진, 무기력을 포함한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래 관계 및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됨.
- 꿈드림센터는 지역의 대형 병원, 대학교와 같은 큰 규모의 기관에서부터 지역의 사회적 농장, 카페 등의 작은 기관과의 다양한 연계활동을 진행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연계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개입,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이 제안되었음.
-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전방향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충, 독립적인 공간 확보, 청소년과 종사자 1:1 매칭 혹은 소규모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보다 활발한 지역 연계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총 47개의 중소도시 지역(인구수 20만 이상이면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 꿈드림센터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비교가 가능한 문항의 경우, 2020년 조사 결과(대도시 지역) 및 2021년 조사 결과(읍·면/소도시 지역)와 비교·분석하였음.
- 설문에 참여한 중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의 36.2%가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25.5%가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38.3%가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음. 중소도시 꿈드림센터의 전용공간 확보 비율은 대도시의 전용공간 확보 비율(23.2%)과 읍·면/소도시의 전용공간 확보 비율(11.1%)보다 높았음. 읍·면/소도시 지역에서의 매우 낮은 수준의 전용공간 확보 비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중간규모 지역에서도 10곳 중 6곳 정도에서는 전용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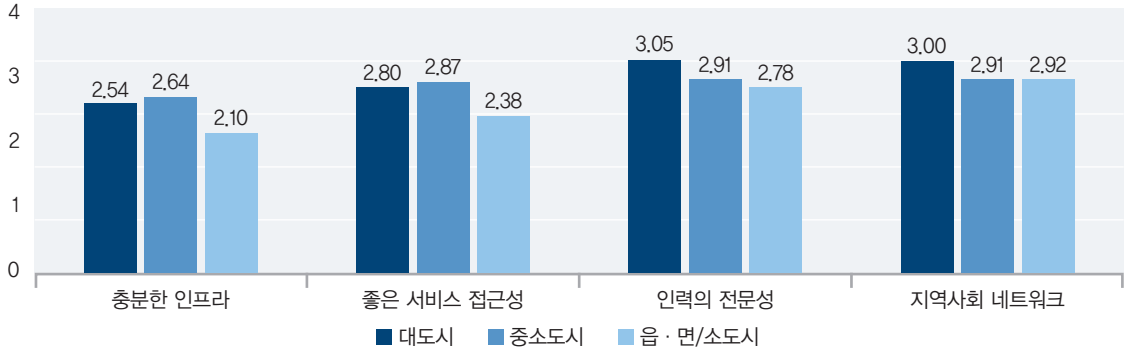


주: 연도별로 지역규모를 달리하여 조사한 것으로, 대도시는 2020년, 읍 · 면/소도시(인구 20만미만)는 2021년, 중소도시는 2022년에 수행된 조사결과임.

[그림 3] 지역규모별 꿈드림센터 공간 사용 현황

-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건강검진을 안내·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업훈련 지원, 급식지원은 95.7%의 꿈드림센터가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55.3%)와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59.6%)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경제적 지원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대학 진학 시 필요한 학자금, 장학금 및 포상제도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지원(63.8%), 급식 지원(51.1%)이 그 뒤를 이었음(1, 2, 3순위를 합친 응답 비율).
-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종사자 처우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대도시, 읍·면/소도시 지역보다 중소도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소도시(인구 20만 미만)에서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음.

(단위: 점)



주: 연도별로 지역규모를 달리하여 조사한 것으로, 대도시는 2020년, 읍 · 면/소도시(인구 20만미만)는 2021년, 중소도시는 2022년에 수행된 조사결과임.

[그림 4] 지역규모별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인식

- 꿈드림센터의 발전방향 및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청과의 연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지역 연계 활성화, 질적으로 우수하며 지역별 욕구 및 특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문 상담원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충, 독립적 공간 확보,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 등이 제안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고려사항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음. 지역 규모에 따른 인적·물적 인프라 격차와 지원내용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함.

	도시지역	읍 · 면/소도시지역
지역 특성	풍부한 인프라, 편리한 교통,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청소년 기관 다수, 충분한 가용 및 유사 자원	부족한 인프라, 불편한 교통,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부족, 제한적인 가용 자원
정책 고려 사항	**꿈드림센터 지원 차별화 및 역할 재정비** • 지원내용 및 역할 관련 논의 필요 • 서비스 차별화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소외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계 지원	**지원 격차 해소,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타 지역 꿈드림센터(인근 도시 지역)와의 연합사업 등 지역연계 활성화 • 원거리 소외지역 청소년 이동성 제고 • 취업/창업 포함 다양한 플랫폼 통한 지원

[그림 5] 지역규모별 특성에 따른 정책 고려사항

4. 정책제언

- 선행연구 고찰,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의 질적 자료 분석,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개선 방안 연구(꿈드림센터 현장종사자 및 관계자 면접조사, 꿈드림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AHP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음.
  -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은 정책 영역 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정책과제들 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적·물리적 인프라 개선',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지원 확대', '진로탐색 및 기초 학습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전체 세부 추진과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①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④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⑤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이라는 5개 방향성에 기반하여 5개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7개 정책과제,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 비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자립 구현

정책 방향

-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학교, 지자체, 대안학교)
2.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지원 기관 · 사업 홍보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제도화
3. 지원 전달체계 개선 · 재정비	•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서비스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체계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 원스톱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및 도농 연계
4. 지원 대상범위 확대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지원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가정 밖, 사각지대 청소년) • 다문화 후기 ·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5.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 제공 •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 • 심리 · 정서 · 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수요 · 미래전망 기반 자기주도적 직업교육 · 취업지원 • 대학 입학 심층 지원

[그림 6]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각 영역별로 제안된 정책과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개선' 영역의 정책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학교, 지자체, 대안학교)을 제안하였고, 이에 관련된 세부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1-1.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강화	의무교육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법제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진학 청소년 개인정보 의무 연계 법제화
	조기 발굴 시스템의 지자체 연계 방안 모색
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학교, 지자체, 대안학교)	장기 결석 청소년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등에서의 꿈드림센터 조기개입 체계 구축
	청소년증 발급기관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 체계 마련
	인가 · 미인가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지원

'Ⅱ.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영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지원기관·사업 홍보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차별금지 제도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관련된 세부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2-1.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지원기관 · 사업 홍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아웃리치, 유튜브 적극 활용을 통한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
2-2. 학교 밖 청소년 차별금지 제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 대처방법 안내 및 지원

'Ⅲ. 지원 전달체계 개선 재정비' 영역과 관련한 정책과제로서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 원스톱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및 도농 연계를 제안하고, 각 정책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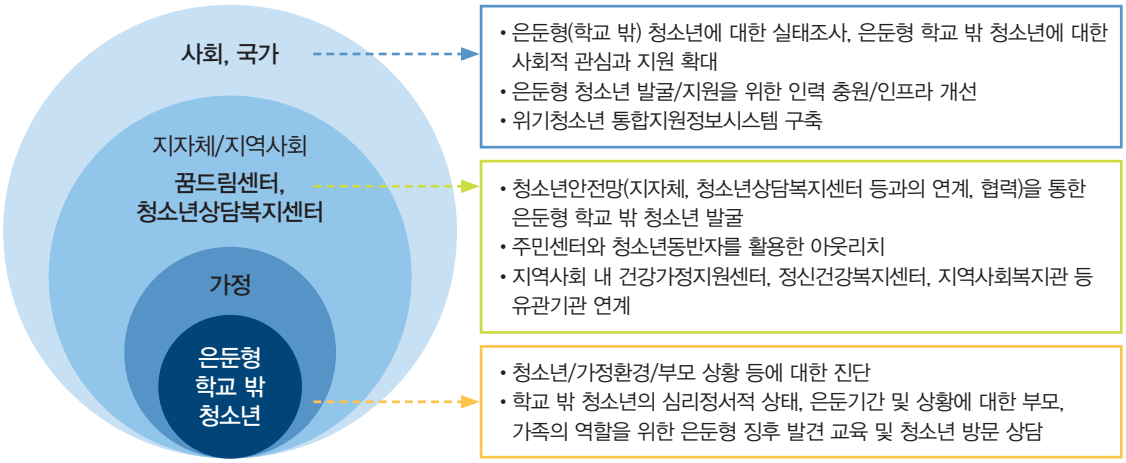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3-1. 학교 밖 청소년 부모(보호자) 대상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부모(보호자) 대상 꿈드림센터 및 지원내용 안내
	가족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부모대상 사업 마련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인적 · 물적 인프라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전문 인력의 꿈드림센터 배치
	체계적 · 안정적 지원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
3-3.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 원스톱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
	청소년 친화적 직업체험/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망(지역생태계 구축) 및 보상 체계 마련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3-4.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및 도농 연계	도시지역 꿈드림센터 지원 차별화 · 재정비
	소도시/읍면지역 꿈드림센터의 지원 격차 완화 지원
	도농 간 꿈드림센터 연계 · 협력

- 'Ⅳ. 지원 대상·범위 확대' 영역의 정책과제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가정 밖, 사각지대 청소년), 다문화·후기·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각 정책과제별로 아래와 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4-1.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지원체계 구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가정 밖, 사각지대 청소년)	꿈드림센터 교육 · 프로그램 참여 수당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동기 부여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경제적 사각지대, 실질적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
4-3. 다문화 · 후기 ·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후기청소년(만19~24세)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초등학교 미진학, 초등단계 학교 밖 청소년 요구 파악 및 현실적 지원체계 모색

- 각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Ⅳ. 지원 대상·범위 확대'의 학교 밖 은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제안 내용을 예시로 제시하면 [그림 7]과 같음.



[그림 7]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다차원적 지원체계 예시

‘Ⅴ.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영역에서는 복합적 취약 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 제공,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 심리·정서·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수요/미래전망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직업교육·취업지원, 대학 입학 심층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5-1. 복합적 취약 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 관점의 지원 제공	복합적인 취약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진단-지원체계 구축
5-2.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진로미결정 청소년 대상 심층 진로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진로상담 전문 인력 배치
5-3.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강화 및 교육 플랫폼 개발	학습부진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취득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플랫폼 개발
5-4. 심리 · 정서 · 사회적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문 상담 및 병원 치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의지 및 동기부여,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제공
	사회적 관계 및 소속감 기회 제공 확대
5-5. 학교 밖 청소년 수요/미래전망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직업교육 · 취업지원	청소년 요구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 · 직업체험 기회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 자립작업장을 포함한 취업 ·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한 경제적 보상 확대
5-6. 대학 입학 심층 지원	대입 전형에 따른 전문적인 대학 진학 지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학 기회 확대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생태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도식과 같음.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	학교를 그만둔 직후 단계	학교 밖 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단계	성인기 이행
당면 문제	• 장기결석, 무기력 등 •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계획이나 관련 정보 미흡 •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 장래에 대한 불안, 우울 • 대인관계 스트레스, 은둔 • 막막함, 경제적 어려움 • 자원, 지원 결핍 등	• 진로미결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함 • 진학/취업정보 및 준비에 대한 정보, 자원 부족 • 또래 관계/활동 기회 부족	• 진로미결정 상태 • 새로운 환경(대학, 직장)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 • 지속 등(입대 등)
청소년 개인과 가족 체계 개입	• 장기결석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과정의 꿈드림 조기 개입 • 청소년과 부모(보호자) 대상 상담지원(복교를 포함한 진로선택지/방법 안내) • 꿈드림센터를 포함한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 안내	• 청소년의 특성, 상황, 지원 욕구 파악을 위한 초기 상담 및 진단 • 심리정서적 지원/트라우마 치료 • 동기부여, 자신감 및 회복탄력성 증진 등 (계속) • 가족지지체계 기능을 위한 부모(보호자) 대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Out-reach, 방문상담 등	•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 지원 • 진로상담/전문적인 진로지도, 직업탐색 • 대학 진학 준비 청소년 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준비 • 취업 희망 청소년의 수요와 미래 전망 기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 인턴십 기회, 자격증 취득 지원 • 또래/사회적 관계 구축, 멘토링 지원,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교통비, 경제적 지원 등	• 청년대상 정부지원 안내, 정보 제공 • 지속적인 사례관리 • 심리사회적 지지체계로 기능, 멘티/멘토 기회 제공 •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추가적인 직업훈련 등 계속 지원
지역 사회/ 지자체/ 정부 체계	•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자원 탐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이후 계속)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차별금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후 계속)	• 학교,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연계 • 주민센터 포함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원스톱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거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센터 간 연계도농 꿈드림 연계 등(계속)	• 지역사회 내, 인근 지역의 취업/인턴십 가능 기관, 작업장 발굴,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노력 • 자원 및 경제적 지원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시 차별 금지 및 부당 처우 대응 지원(계속)	• 청년대상 정부정책 탐색 및 자원 연계 • 지역내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 취업/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 처우 대응 지원

[그림 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단계별 종합지원방안

참고문헌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패널조사 중심으로**(연구보고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6-2021)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년 10월 1일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 044-415-2114 팩스 044-415-2349 www.nypi.re.kr